

경기도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주거의 질 향상된다 주택의 안정적공급 및 주거의 질 향상 기대



경기도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시행령이 운영됨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10

월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경기도는 지금까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 및 주택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급변 경기도주택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되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주택조례 제정안은 크게 주택종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주택의 건설기준, 우수단지 선정 등 주택의관리에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등을 보면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종합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했다.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건설계획, 택지수급계획 등이 반영되고 10년 단위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과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도록 했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은 제외 ▶전용 60㎡이하인 소형주택은 길이가 50m 이하 또는 6호 연립까지 허용.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시지역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단지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충토록 하였다. ▶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여건으로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용. 건설하고 하자 없는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간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자 및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6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관 구성 ▶우수관리자 및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 등 지급. 경기도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토록 했다.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심의 ▶경기도 중요 주택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후 경기도 의회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며, 경기도주택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10월30일까지 경기도(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버스요금 평균 17.4% 인상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0월 15일 04시부터 일반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65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중고생은 4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고 초등생은 현행대로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좌석버스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직행좌석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경기도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도시형버스의 경우 50원, 좌석버스의 경우는 100원으로 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교통카드 이용을 장려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해 첫차 탑승 후 2시간 이내 환승시 후승차량 요금은 50원이 할인돼 버스이용승객은 카드할인을 포함해 1회 환승시 15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청소년 및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5%, 62.5%씩을 각각 할인해 요금부담을 최소화 하고 학생할인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금은 1건당 50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스업체에서는 2003년 3월에 버스요금이 인상된 이후 경영여건이 14.9%가 악화되고 근로자 임금이 8.9%나 상승하여 운송원가는 높아진 반면에 운송수

입은 감소하여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는 나빠지고 승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요금조정 특징은 타 시·도가 현금 이용시 100원을 추가 부담토록 한 것과 달리 교통카드 보급률을 감안하여 도시형 일반버스의 경우 현금 이용시 50원만 추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요금인 300원으로 동결하고,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0원만 인상했으며, 통합시의 경우

에는 일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위해 2007년까지 3,500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한편, 2005년부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등 고급버스 43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버스의 운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11개소와 광역환승센터 20개소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버스업체의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성남, 김포시 등 2개시에 대하여 버스노선 공영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시, 주민세 성실 납세자 景品 전달

성실납부자 3만1천611명 가운데 추첨



7일 포천시청 부시장실에서 주민세 성실납부자 경품전달식이 개최됐다.

포천시는 7일 부시장실에서 전 산추첨을 통해 당첨된 2004년도 정기분 주민세 성실납부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포천시는 지난

8월에 부과한 주민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3만1천611명 중 세금액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실시해, 모두 206명을 각각 1등에서 4등 당첨자로 선정해 경품을 전달했다. 포천시가 자진납세 분위가 조성되고 조기납부를 통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이정열 포천시 부시장은 1등에 당첨된 포천시 소흘읍 이모씨와 이동면 권모씨에게 15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2등에 뽑힌 신음동 김모씨와 가산면 조모씨에게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그리고 3등인 일동면

양모씨와 가산면 이모씨에게 7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각각 전달했다. 이밖에 4등 200명에게는 만원아트홀 공연입장권(1만원)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종합토지세 제2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격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전자수납과 텔러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을 이용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이번에 '납세 편의사책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와 '납세고지서에 의한 은행 방문 납세자'를 각각 50%씩 추첨, 경품을 지급했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주민발언대
국제자동차 경주장 유치를 원합니다.

포천신문에 기재된 스즈카 국제자동차 경주장 유치는 참수면으로 해야한다. 참수면은 포천시에서 제일 나후지역으로 문화시설 및 지역개발에서도 나후지역이지만 산이 야산으로 경주장 환경에는 제일 조건이 좋은 곳이다. 국제 자동차 경주장 유치시 참수면에 관광사업 및 고용인력 창출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포천시청과 거리도 참수면이 제일 가깝고 근처에 신북온천·산정호수, 이동갈비, 일동온천지구 등 포천시 관광지역이 10-20분내의 거리에 있다. 참수면에 유치시 포천시 관광사업에도 기대가 된다.

유승관

우신석재

高감각 조형물, 석재조각품 전문가공업체



소장 유영술

최근 들어 국내 석재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 중국 석재 업체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국내 석재업체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확실히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이 포천산으로 둔갑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며 "사리사욕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업자들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신석재는 전국에 이름난 대면 알 수 있는 대규모 조형물, 석재 조각품 제작에 정교한 기술력,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독립기념관 본관에 위치한 '한국의 여성', 함양 산청에 '빨치산 유평탑비', 강원도 법흥사의 '일주문 불사', 전주경찰청, 오산아파트, 안산고려병원, 해남 해안조각공원, 대구 주공아파트, 안양 LG아파트 등에 제작을 마치고 최근에는 수지면 법흥리 법흥사내에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8각7층석탑(통석으로 조립,

포천石의 명예를 위해 홍보에 만전 세계 최고수준의 석질과 技術力 보유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리석이나 화강암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압축강도가 높고 수분함유율이 적고 재질이 나 문양면에서도 최고 점수를 얻고 있다. 국내 모 박물관 공사에서는 국산 대리석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값비싼 수입산으로 치장되어 우수한 석질을 자랑하는 국내석이 국내에서도 명시를 받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대리석이 생산되는지 모르는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말해 국내석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급선무인 듯 싶다. 수십년간의 경력과 노하우, 신뢰를 주무기 삼아 석재조각품, 조형물, 석재건축 특수공업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신석재(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7-2번지 소장 유영술)는 지난 1996년 설립돼 석재 조각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석재 가공업에 몸담아온 유영술 소장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포천석의 인지도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산

높이 15M, 3M)의 석재 조각품을 제작중에 있다. 하지만 유영술 소장에게는 한가지 약점이 작용하고 있어 하청만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조형물 제작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60%이상을 하청받아 철저한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영술 소장은 "넓은 부지(2300여평)를 작품전시관과 석공물, 조형물 보관, 철거, 대행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천시에서 준비중인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공원과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급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유영술 소장의 모습에서 참다운 조각 예술가 영혼이 가미된 작품세계를 읽을 수 있었다. 문의 031)536-0457, 011)9948-4027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수십년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신석재가 8각7층 석탑을 제작하고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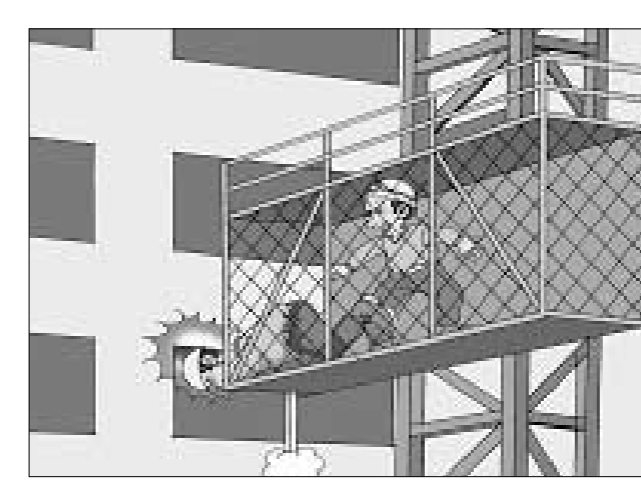
홍길동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여 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이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홍길동씨는 2004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홍길동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홍길동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홍길동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제1 7조제2항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 제9항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리프트 탑승자 하차 중 협착 후 추락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 원인으로서는 리프트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는 운반구 출입문 연동장치(리미트 스위치)를 철선으로 묶어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또 출입문의 연동장치가 기능을 상실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반구 운행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됐다. 참고로 무인호출식(무인자동방식) 건설용 리프트의 특징은 안전장치(출입문연동장치) 미작동(고장, 해제) 상태에서 운반구 내부 수신기에 다른 층의 버튼이 눌러져 있거나 탑승부 개폐식 안전문의 송신기에 호출 신호가 있을 때는 근로자가 내리는 층에도 정지 후 5초가 지나면 리프트 운반구는 자동으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방호장치의 기능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비상정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의 기능이 항상 유지된 상태에서 리프트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설치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